2026
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
정시 ⑦

수학 강점 살려 <경제> 선택 내게 맞는 과목·대학 찾았죠

지철씨는 고3부터 정시에 주력했지만, 대형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서실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홀로 실력을 키웠다. 공부할 때만큼은 휴대폰을 멀리하고 철저히 시간을 관리한 덕분에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강점을 살린 수능 과목 선택은 합격의 열쇠가 됐다. 지철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재 이지혜 리포터 wisdom@naeil.com



박지철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경기 사우고)

Q | 정시에 주력하게 된 계기는?

수학은 늘 내신 1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기대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2학년 2학기를 마쳤을 때 내신 평균은 2.9등급이었죠. 이 성적으로는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남은 기간에는 정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열심히 준비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Q | 수능 과목을 선택한 기준은?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어요. 처음 공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문법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수학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받아온 만큼 가장 자신 있는 〈미적분〉을 골랐습니다.

자연 계열 전공을 희망했고 고교에서 〈물리학 Ⅰ〉 〈화학 Ⅱ〉 〈생명과학

Ⅱ〉까지 이수했지만,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했어요. 과탐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잘 해낼 수 있는 사탐 과목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편이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사탐은 〈경제〉를 선택했어요. 응시자 수가 적은 데다 수리적 사고와 자료 분석을 요구하는 문항이 까다로워 선택을 망설이는 학생이 많은 과목이죠. 하지만 수학에 자신이 있는 저로서는 오히려 강점이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사회·문화〉는 선택하기 전에 난도가 높다고 알려진 도표 문항을 풀어보며 제 실력을 시험해봤어요. 그 결과 해볼 만하다는 확신이 들어 선택했습니다.

Q | 수능은 어떻게 대비했나?

3학년 1학기에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학습 시간이었어요. 하루를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밤 12시에 잠들고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고, 학원 대신 학교 수업과 인터넷 강의를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세웠죠.
평일에는 시간대마다 공부할 과목을 정해뒀어요. 수능 시간표에 맞춰 매일 아침 7시 30분 전에 등교해 1시간 30분 동안 국어를 공부했죠. 소란스러운 점심시간에는 소음에 덜 방해받는 수학 문제를 풀었고요.
주말에는 평일보다 공부 시간을 늘렸어요. 오전에는 국어와 영어, 오후에는 수학과 사탐을 공부했어요. 이 시간 동안에는 휴대폰을 일절 보지 않았어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니 이런 생활이 특별히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Q | 추천하는 인터넷 강의가 있다면?

국어는 개념 학습부터 실전 대비까지 메가스터디 전형태 강사의 교육과정을 따라가며 실력을 쌓았어요. 수학은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의 '뉴런'과 '수분감'으로 공부했어요. '뉴런'으로 개념을 다진 뒤 '수분감'으로 기출 문제를 풀며 이해한 내용을 점검했죠.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에 따로 모아 풀이 과정을 다시 써봤고, 같은 유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 번 복습했습니다. 특히 '수분감'은 기본 개념은 익혔지만 아직 문제 풀이가 어렵거나 고난도 문항 접근법을 익히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해요. 〈미적분〉은 현우

진 강사의 '시발점' 강의와 교재로 기본 개념부터 학습했어요. 강의 후에 문제를 풀며 복습했더니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됐어요.

Q | 수능 결과와 정시 지원 전략은?

수능 백분위는 〈언어와 매체〉 94, 〈미적분〉 94, 〈사회·문화〉 95, 〈경제〉 99를 받았어요. 영어는 2등급을 받았고요. 수능 성적이 나온 날부터 진학사의 모의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할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고민했어요. 저는 탐구 영역에서 〈사회·문화〉와 〈경제〉를 선택했기에 대학의 과탐 가산점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는 과탐 응시자에게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제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여부를 잘 살피면 정시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Q | 정시를 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공부할 때만큼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험 생활을 돌아보니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쉬었던 시간이 후회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적절한 휴식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긴 수험 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죠. 다만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음에도 온전히 몰입하지 못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요. 후배들도 쉴 때는 마음껏 쉬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수능 날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TIP

사탐 고득점, 암기 전에 개념 이해부터

사탐 과목은 암기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힘을 먼저 길러야 한다. 처음 개념을 학습할 때도 단순히 정의부터 외우기보다는 해당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개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도표 문제는 계산 속도도 중요하다. 자료를 해석한 뒤 나오는 분수와 비율을 암산하는 연습을 해두면 좋다. 가령 100÷8=12.5와 같이 자주 쓰이는 계산은 따로 필기하지 않아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외워두면 문제 푸는 시간이 단축된다. @